

한국의 지질공원 뉴스레터

KOREA GEOPARKS
NEWSLETTER

CONTENTS

KOREA GEOPARKS NEWS

- 02 국가지질공원사무국
- 03 제주도
- 04 부산
- 05 청송, 강원평화지역
- 06 한탄강(포천, 연천, 철원)
- 08 무등산권
- 09 강원고생대
- 10 경북동해안, 전북서해안권
- 11 단양, 진안·무주

INTERVIEWS

- 12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념 인터뷰
- 15 단양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인터뷰

ABOUT KOREA GEOPARKS

- 16 국가(세계)지질공원 소개
- 17 국가지질공원 인지도
- 18 공원별 체험 프로그램 안내
- 19 공원별 지오파트너 안내

올해 신규 인증 받은 단양 국가지질공원



발행일 2020.11.22.

발행인 박경필

발행처 국가지질공원사무국

기획 및 편집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35(번곡동)

홈페이지 www.koreageoparks.kr



2020년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 성황리에 종료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경기도 연천읍 수레울 아트홀에서 진행된 2020년 첫 번째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이 38명의 신규 지질공원해설사를 배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에는 올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포천연천철원 지역 주민뿐 아니라 강원도 태백 지역 주민까지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소양과정 4개 분야 9과목 40시간과 전문과정 6개 분야 11과목 60시간 일정으로, 당초 8월 31일로 예정됐던 전문과정의 경우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 연기돼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규모 수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장소가 변경되는 등의 여려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생들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고향에 대한 자부심으로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기량을 쌓았다. 또 휴일에도 지질명소를 방문해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해설 시연을 준비하는 등 교육에 높은 열의를 보였다. 지자체에서도 교육생들에게 장소, 강사, 현장 답사 버스

등을 제공하며 수료생들이 지질공원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향후 수료생들은 지자체 선발을 통해 한탄강 지질명소와 지정문화재 등에 배치돼 안내 및 해설, 텁방센터 관리 및 홍보, 체험프로그램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지질공원사무국 관계자는 "지역 내 지질공원 우호세력으로 활동할 신규 지질공원해설사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가지질공원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지질공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지질공원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신규 인증을 받은 단양을 제외한 지질명소 안내판에 부착된 QR 코드를 인식한 후 웹으로 그인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 없이 간단한 회원 정보 동의로 참여할 수 있다. 로그인 후 GPS를 확인하면 스탬프가 적립되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스탬프 수량 1개부터 3개, 5개, 10개가 될 때마다 기프티콘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교환권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각각 교환권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을 증정한다. 이 이벤트는 11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연말에는 최고의 참여자를 찾는 연계 이벤트도 진행된다. 11월 30일까지 스탬프 인증 수량이 가장 많은 5명을 선정해 지오힐스 숙박권을 증정하는데, 최다 인증자에게는 2박 숙박권을, 이외 4명에게는 1박 숙박권을 증정하며 중복 시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해가 갈수록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지질명소의 수가 늘어난 만큼 참여 이벤트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스탬프를 모두 적립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 내년 9월로 연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 조직위원회 회의(2020. 2. 7.). 국내 전문가를 비롯해 세계지질공원 니콜라스 조로스 회장이 참석했다.

올해 9월로 예정됐던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내년 9월로 연기됐다.

지난 2018년 이탈리아 총회에서 제9차 총회 유치에 성공한 이후 제주도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에 개최된 제71차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올 11월로 연기 개최를 잠정 합의했고, 이후 6월 제76차 회의에서는 다시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어 제77차 회의에서 제주도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GGN ExB)는 2021년 9월로 일정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9월 세계지질공원 제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총회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월봉 지질유산 보호 활동 전개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수월봉 지질유산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지질유산이 중요한 보호대상일 경우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낮은 식물의 성장이 지질유산의 훼손을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는 문화재청과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집조 제거에 나선 것이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수월봉은 매년 30만 명의 텁방객이 방문하는 명소다. 특히 수월봉의 해안 절벽을 따라 차곡차곡 쌓

여 있는 화산재 지층이 수성화산의 형성 과정을 알려 주고 있어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자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굳어지지 않은 퇴적물 사이로 많은 풀들이 자라 퇴적층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이번 집조 제거 작업을 통해 풀 속에 숨겨져 있던 지층이 드러나 수월봉의 경관미를 높이고 과거 화산활동에 대한 텁방객들의 이해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에 대해 지층의 풍화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풀 제거 작업 전후 모습 비교

제주도 지질공원해설사, 지질유산 지킴이로 활약

제주도 지질공원해설사들이 해설뿐 아니라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지질유산의 지킴이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지질공원해설사들은 텁방객들에게 해당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홍보,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 지질공원해설사의 경우 텁방객들에게 마을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줄 뿐 아니라 지질명소를 지키고 관리하는 등 그 역할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원래 업무인 해설 외에 정기적인 텁방로 점검을 통해 주요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등 제주도 지질공원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과 함께, 기상 악화 및 태풍 발생 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대책에도 적극 나선다. 이에 대해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계자는 "제주도 지질명소에서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까지 보살피는 제주도 지질공원해설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륙도 지질탐사대 활동 진행



부산 국가지질공원이 지오파트너인 부산국가지질공원해설사협회와 함께 지난 8월 8일부터 9월 26일까지 '화산과 퇴적암이 만든 부산! 오륙도 지질탐사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5월부터 7월에 걸쳐 진행된 1기에 이어 두 번째 활동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총 4차에 걸쳐 오륙도의 형성 과정과 화산활동, 두송반도가 말해주는 부산의 고환경, 낙동강 하구에 쌓인 퇴적층과 해안식성 등 부산의 지질형성 과정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테마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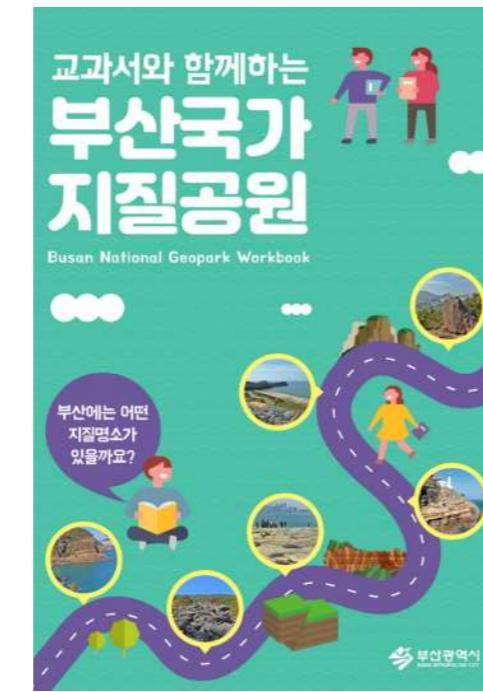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지질명소를 탐방하며 지질명소의 소중함과 보호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한편, '2020년 환경부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 중 하나인 오륙도 지질탐사대는 부산지역 초·중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을 정립하고 자연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기획됐다.

집에서 만나는 부산 국가지질공원, '우리 집은 환경놀이터' 큰 호응

부산 국가지질공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콕'하는 시간이 많아진 학생들을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우리 집은 환경놀이터' 2차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환경교육 교재·교구를 보급했다. 지오파트너인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와 공동 추진하는 '우리 집은 환경놀이터'는 집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환경교육 교재·교구를 무상 보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미 지난 상반기 1차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국가지질공원 팝업북 '우리가 몰랐던 부산의 자연 환경 이야기'를 보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관내 현직 교사들과 함께 교과과정과 연계해 개발한 '교과서와 함께하는 부산 국가지질공원'을 비롯해 '미세먼지 경보발령 SOS', '부비와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로 96길', '곤이와 함께하는 을숙도 생태탐험' 등 총 5종의 환경교육 교재·교구 5,000세트를 추가 보급했다.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학생들이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되면서 신청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부산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도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지오드림, 2020년 지질탐험대' 개최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난 6월 27 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중학생들과 함께 '지오드림, 2020년 지질탐험대'를 진행했다.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두 번째로 결성된 이번 팀마다는 '하얀 돌이 반짝거리는 개울, 백석탄'을 주제로 안덕면 백석탄 계곡 탐방하며 생태, 지질 자원 등 자연환경을 배우고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우는 활동이다.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두 번째로 결성된 이번 팀마다는 '하얀 돌이 반짝거리는 개울, 백석탄'을 주제로 안덕면 백석탄 계곡 탐방하며 생태활동을 통한 자연놀이와 신성계곡 캠핑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청송군청소년수련관에서 코로나19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백석탄과 신성리 공룡발자국으로 이동했으며, 지질공원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교과서에서 배운 지질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했다. 또 한 조별 활동을 통해 신성계곡을 만든 퇴적작용과 공룡이 살았던 고대 지구환경에 대한 퀴즈를 풀며 자연스럽게 자연과학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후에는 인근 야영장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음식 재료로 직접 요리하며 협동심을 키웠다. 밤에는 국립대구과학관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여름철 청송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찾았고 망원경으로 달 분화구를 직접 보는 체험 활동도 가졌다.

강원평화지역

송지호 해안 서낭바위 복원 대책 마련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이 세랑바위의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람들의 출입과 풍화현상 등으로 세랑바위가 넘어질 것을 염려한 마을 주민들이 바위 하단부 잘록한 부분을 시멘트로 마감 처리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 까닭이다. 당시 마을 주민들로서는 가장 경제적이며 최선의 선택이었으나 최근 텁방객에 의해 시멘트 마감 처리에 대한 지적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이에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 세랑바위 보존과 복원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

한편, 세랑바위는 송지호 해안 남쪽 화강암 지대에 발달한 암석으로 화강암의 풍화미지형과 파도의 침식작용이 어우러져 매우 독특한 지형경관을 이루고 있는 지질명소다. 오랫동안 군사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다가 최근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해져 많은 텁방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탄강에서 소곤소곤' 창작동화 기획전시 개최



한탄강지질공원센터에서 '한탄강에서 소곤소곤' 동화책 발간 기념 기획전시가 열렸다. '한탄강에서 소곤소곤'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포천 지역 교육공동체인 '한사랑 공동체'와 지역학생 간 협업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동화 만들기 프로젝트의 성과물로, 이번 전시에는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진행, 동화 작명, 작품 제작 등 동화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이 담겨 있다. 특히, 동화의 스토리는 물론 동화 장면 모형 만들기 등 모든 과정에 지역 내 초·중등학생들이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책에는 한탄강의 대표 마스코트인 탄이(현무암), 진이(응회암), 천이(화강암)를 주인공으로 한 세 가지 이야기와 함께 학생들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배경으로 직접 제작한 마스코트 조형물이 삽화로 실렸다. 완성된 동화책은 지역 교육기관에 배포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탄강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공동체와 학생 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질공원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회 한탄강 평화포럼' 개최



지난 8월 14일 한탄강지질공원센터에서 '제4회 한탄강 평화포럼'이 개최됐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손세화 포천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본 지질공원 네트워크(JGN)' 노네다 이사장은 화상을 통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축전을 보내왔다. 또한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와 일본 유네스코 평의회 위원인 와타나베 마히토 박사, 최대성 EBS 강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탄강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2020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주민 아카데미 운영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올해 7월 29일부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0 주민 아카데미 in 연천'을 운영 중이다. 연천군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전에도 'DMZ 주민 아카데미'를 3년간 운영하며 주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올해 운영 중인 주민 아카데미는 교육 대상자와 목적에 맞춰 '유네스코 보호구역과 지속 가능 발전', 'DMZ 평화생태관광 교육', '연천군 관광 서비스 마인드 교육', '세계지질공원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의 4가지 교육과정으로 집중 및 확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세계지질공원 인증이라는 주민 공통의 관심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절차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 속에서도 매주 교육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욕은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지질공원의 목표를 위해 주민 교육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교육·관광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 주민 아카데미 in 연천'은 실내교육과 야외경학 및 학습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4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2020년 11월 중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고석정, 소이산, 직탕폭포 등 환경정화 활동 재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 지역은 가을을 맞아 고석정, 소이산, 직탕폭포 등 명소 세 곳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재개했다. 이 행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탄강 지질명소에 대한 환경 정비와 지질교육을 병행하는 봉사활동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의 실외활동 빈도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활동 중에는 체온 측정과 손 소독제 사용, 전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젠 지질교육도 비대면 시대! ‘언택트 지오시네마’ 화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기 지질교육 프로그램 '지오시네마(Geo-Cinema)'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오시네마는 2018년부터 매주 토요일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질 관련 영화를 관람하고 이어서 지질공원해설사가 영화 내용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언택트 지오시네마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2년에 걸쳐 진행했던 총 7편의 지질교육을 3개월에 걸쳐 녹화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유튜브 계정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비대면 방식인 만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 교육청과 함께 홍보를 진행해 참여를 이끌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하반기 진행 예정인 지오시네마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계획할 계획이다.

지질공원해설사, 지질명소 모니터링 역할 톡톡

무등산권 지질공원해설사들이 지질명소 모니터링 업무에 투입되는 등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지질공원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큼 시시각각 변화를 누구보다 기민하게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는 해설사 세 명이 한 조를 이뤄 지질명소 20개소를 총 8 개 구간으로 나눠 월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질학적 모니터링은 별도의 학술용역에서 진행하지만, 지질명소 및 동식물 변화, 시설(안내판, 텁방로 등) 현황, 청소 상태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지질공원해설사가 맡게 됐다.

해설사들의 모니터링 업무 투입에 대해 관계자는 "2주에 1번 추진하는 모니터링은 안내판 등 시설 관리에 용이하다"며 "무등산의 경우 지질 공원 사설뿐 아니라 국립공원 사설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립 공원 등 유관시설에 바로 전달함으로써 모니터링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MBC 특집 방영 ‘1억 년 전의 유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지난 9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주제로 한 광주MBC 특집방송 '1억 년 전의 유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방영됐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3년 차를 맞아 재인증을 앞두고 있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국제적 가치를 가진 지질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 미래적 가치에 대해 논의해 보기 위해 총 3부 특집으로 기획됐다.

9월 3일에 방영된 1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의미와 가치'에서는 하민 전남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김영미 동신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우연 무등산권 지질공원 지질 전문가 등이 출연해 패널들과 함께 지질공원의 의미,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가치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 9월 10일 방영된 2부 '보존과 활용, 미래적 가치'에서는 전문용 제주 세계지질공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출연해 무등산 권역에서 이슈화됐던 무등산과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백룡동굴 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백룡동굴 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해 백룡동굴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이뤄졌다. 평창의 지질, 동굴, 생태 등을 주제로 총 5차례에 걸쳐 이론 6시간, 현장교육 2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강원대 지질지구물리학부 조경남 교수와 국립생태원 생태진화연구팀 김선숙 팀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해설사는 "백룡동굴과 평창 지역의 지질 및 생태자원의 학술적 이해와 가치를 보다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다"며 "지역의 자긍심 고취와 지질관광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질 및 생태자원의 보전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백룡동굴 해설사 교육을 이벤트성이 아닌 고정 양성프로그램으로 확립하고 교육 분야를 백룡동굴과 동굴이 위치한 주변지역의 문화, 역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굴을 찾아온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지질명소와 문화를 결합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이 21개 지질명소 중 문화재로 지정된 지질명소에서 문화재적, 지질학적인 가치를 교육 및 체험할 수 있는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민 참여를 높이고 있다. '생생문화재'는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목표로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이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으로 지질명소인 회암동굴, 구문소, 고씨굴, 스트로마톨라이트와 건구역조, 백룡동굴 등과 연계한 지질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방문 활성화는 물론 자연 문화 유산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 '자연문화유산에 우리를 더하다'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으며, 태백시는 독자적으로 '화석과 물길을 찾아 떠나는 생생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정선군은 '백봉령을 품은 정선아리랑'을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쾌거

“
세계 속 빛나는
지질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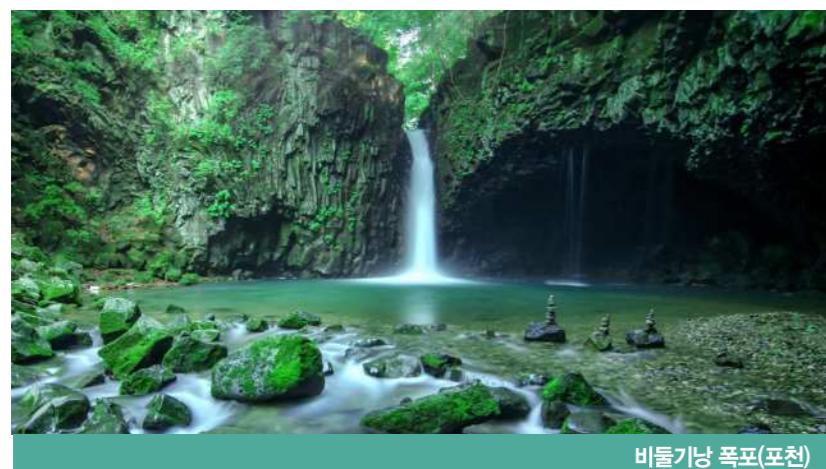
지난 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한탄강 국기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청송,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 이어 네 번째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목표에 대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위치해 있는 경기도 포천과 연천, 강원도 철원지역 담당자에게 물었다.

INTERVIEWEE

포천 최동원 주무관

연천 김대우 주무관

철원 최주아 주무관



Q.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인증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포천] 세계 4대 고대문명이 하천유역에서 탄생했듯 한탄강 역시 문화, 역사, 생태, 지질학 등 다양한 요소가 한탄강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연천] 세계지질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질학적 가치와 다른 지질공원과 구분되는 차별성이 중요한데, 한탄강이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본다. 지질학적으로는 선캄브리아시대부터 신생대까지 모든 지질시대의 암석을 관찰할 수 있는 지질 다양성과 임진강대라는 구조지질학적 가치, 그리고 베개용암이라는 화산암석학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국내 다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달리 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질공원이라는 점과 구석기부터 근대 사적까지 두루 포함하여 고고학,

역사학, 문화적 요소가 융합된 지질명소가 산재해 있다는 차별성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주효했다고 본다.

[철원] 물론 세계지질공원으로서 부족한 부분도 많다. 유네스코 인증 시 권고사항의 양이 이를 증명한다. 다만 지질공원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한탄강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질공원, 지질 관광과 체험교육이 잘 이뤄지는 공원,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지질공원이라는 점이 이번 인증에 도움이 됐다고 본다.

Q.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의 과정은 어떠했나?

[포천] 한탄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한 지 딱 10년 만에 세계지질공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2009년 한탄강 일대 자체조사 실시 후 2010년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한탄강의 지질명소를 발굴했고 2013년 국가지질공원 타당성 검토와 인증 신청을 통해 2015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 해인 2016년에는 한탄강이 위치해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세계지질공원 인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한탄강 주변 지자체의 협력으로 202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Q.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

[포천] 처음에는 제도에 대해 이해 부족과 각 지자체의 특성 때문에 개별로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했다. 철원이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으

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후 포천과 연천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니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밟거름 삼아 2개의 광역자치단체와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는 지질공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연천]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현장설사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전준비와 여행연습 등을 철저히 했지만, 현장설사 위원들이 던지는 예상외의 질문과 접근 방법에 당황하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을 새워가면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근거자료를 준비해 다음 날 아침에 현장설사 위원들에게 제시하고 설명을 다시 했던 과정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철원] 올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도 걸림돌이 됐다.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를 포함해 세계적인 돌발 악재로 인해 관련 회의가 취소 및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지질공원 최종 인증 승인을 받게 돼 무척 기쁘다. 이번 소식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시민과 국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데 일조했기를 바란다.

Q. 관련 기관과의 협업 및 주민들의 도움도 큰 힘이 됐을 것 같다.

[연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지역사회 협업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우리가 제출한 자체 평가점수보다 오히려 유네스코 현장설사 위원들의 평가점수가 더 높았을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연천군에서는 지역 상공 단체를 비롯해 문화예술체육 단체, 박물관 등 공공기관 및 사업소, 그리고 군부대까지 한탄강 일대에 있는 모든 단체와 기관의 도움이 있었다. 또한, 한탄강 일대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주민들이 작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응원했다. 인증 후에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 1분에 한 개씩 축하 플래카드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원과 축하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철원] 철원에서도 정말 많은 단체와 기관, 주민들의 도움이 있었다. 두루미평화마을, 두루미자는버들골 마을 주민들은 물론 직탕가든, 철원샘통물고추냉이 영농조합법인, 철원한탄강래프팅연합회 등 주요 지질명소의 여러 지역 오파트너들로 큰 힘이 됐다.

[포천]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협력이 가장 컸다. 처음에 지질공원을 진행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재산권 제약으로 일부 우려하는 분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지역 발전에 대한 믿음으로 흔쾌히 따라와 줬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다가와 친절히 대응해 줬다. 이 같은 지역 주민들의 도움과 격려가 없었으면 아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Q. 한탄강의 경우 지리적 위치상 남북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철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접경 지역으로서 북한 평강군에서 시작한 한탄강을 시작으로 그 하류에 위치한 임진강이 포함된다. 통일에 대한 기원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기에 철원군에서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통한 통일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를 구상 중이다.

[연천] 연천지역의 지질은 임진강대를 중심으로 북한 측의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임진계는 연천충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다양한 화석들이 발견되는 곳으

로 남북 공동의 연구 활동이 이뤄진다면 지금보다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연구 자료와 국제 학회지에 게재된 북한 연구 자료를 수집해 비교하는 정도의 성과에 머물고 있다. 향후 임진계-연천충군을 중심으로 남북한 공동 연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포천] 현재 한탄강의 북한 지역 확대를 위한 기초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남북 협력 사업은 국제 정세와 도입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언젠가 남북 공동 연구를 통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북한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용암대지(철원)

Q. 이번 세계국가지질 인증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연천]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서 DMZ의 이미지가 미래 지향적인 긍정의 이미지로 바뀌게 된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DMZ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DMZ와 군사보호지역 속에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지질명소들이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면서 밖으로 알려졌고, 현재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도 지질유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계지질공원 운영에 동참하고 있다. 덕분에 새로운 지질명소 후보지도 두 군데 찾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지역 주민들의 정성과 관심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더욱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포천]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은 '유네스코'라는 브랜드 활용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 향상이다. 많은 포천시민들이 세계지질공원 인증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있으며, 한탄강 권역 내 식당들은 유네스코 인증을 축하하며 음료 무료제공 등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의 관심이 높아진 게 최고의 효과라고 본다.

[철원] 지질공원제도는 지역 주민과 함께 지질명소를 보존 관리하며 지역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제도다. 이번 인증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질유산의 보고인 지질명소와 지질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은 물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Q. 세계지질공원 인증 대국민 홍보와 4년 후 재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과제가 남았다.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연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항상 변화하고 살아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새로운 방향의 해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장점인 구석기, 고대, 근대 유산들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포함한 자연유산을 연계해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질공원해설사, 투어 운영자, 파트너 등 모든 이해당사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한다.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기후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신생대 기후변화 관련 학술 연구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연구 결과를 현재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와 연계해 지역 교육활동에도 반영하고자 한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오늘과 다른 내일, 내일과 다른 미래를 지향하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포천] 철원군에서는 세계지질공원 권고사항

의 실행 및 향후 재인증을 위한 중장기 실행 계획 마련과 새로운 관광 콘텐츠 연계방안 구축을 목표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질학적·생태학적·고고학적 자연자원에 대한 학술적 내용이 접목된 교육 체험 관광과 근대문화 역사를 간직한 역사, 문화, 안보 관광 등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관광 콘텐츠 연계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만큼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장애인의 접근성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제작을 구상하고 실행하고자 한다. 실제로 강원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지원 수준이 상당히 개선됐는데, 이를 지속하고자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천] 포천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 중이다. 첫째 지질공원의 모니터링에 많은 비중을 둘으로써 유지관리에 힘쓰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후대에까지 물려주기 위해 환경·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지질공원으로 변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차별성과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질공원별로 특색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한탄강 세계지질공원만의 색깔을 입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포천군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추구하고 있는 체험교육과 관광에 보다 집중할 생각이다.



일본 지질공원 관계자 한탄강지질공원센터 방문

지질·역사문화교육·레저 등 복합적 매력이 물씬!

“

단양 국가지질공원의 매력에 빠져 보세요.

”



INTERVIEWEE
어수용 단양 지질공원 해설사



단양 지질명소

단양군이 올해 13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을 받아 화제다. 충청권에서는 첫 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서 단양군은 인증 이후 텁방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단양 국가지질공원의 일원인 어수용 지질공원해설사로부터 이번 인증의 소감과 단양 국가지질공원의 매력에 대해 들어 봤다.

Q.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현장실사 때의 멀림과 기대감이 기억났다. '이제 됐구나!' 싶었다. 그동안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힘써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Q. 현재 단양 국가지질공원 해설사로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

지질공원해설사는 지질·지형·역사문화 등을 통합해 그 지역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지질공원의 얼굴이다. 주로 텁방객에게 단양의 지질·경관·문화·역사·고고학 등을 종합적으로 해설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질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지오-에듀 투어'를 통해 아외 체험학습도 진행 중이다.

Q. 국가지질공원으로서 단양의 매력을.

단양은 매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다. 특히 역사와 문화 외에도 체험학습(액티비티)까지 경험할 수 있는 융·복합적 관광지로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지질과 지형학적 가치가 부각되며 이와 관련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Q. 올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많은 텁방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데.

코로나19 유행 초기 때는 다소 주춤하기도 했으나 전통시장 활성화와 각종 숙박 및 캠핑시설 등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수가 다시 늘고 있으며 지역 소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 수는 작년 대비 65%로 줄었지만, 지역 사업자의 소득은 유지 혹은 일부 상승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결과도 나왔다. 단양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객 방문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이 큰 유인책이 됐다고 본다.

Q. 단양 국가지질공원 텁방객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미취학 아동들은 캐리터나 꽃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은 해설을 관심 있게 듣는 편이며 질문도 많이 한다. 가장 관심 있게 해설을 듣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과정에 대해 질문도 하고 단양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않는다.

Q. 단양 국가지질공원을 텁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한다면.

우선 삼봉길과 수양개 역사문화길, 석문길, 선암골 생태유원길의 네 개 텁방로를 따라 걸으며 단양의 아름다운 지형과 지질학적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지오토레일'을 들 수 있다. 버스와 택시로 보다 쉽게 단양 국가지질공원을 둘러볼 수 있는 '단양군 시티 투어'도 추천할 만하다. 버스는 매주 토요일 지질 및 문화 해설사와 함께하며, 택시는 교육을 이수한 친절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수시 운행된다. '지오-에듀 투어'는 지질 전문가 및 해설사와 함께하는 아외 체험학습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년별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역사·문화·고고·레저·관광·경관·생태 등과 연계돼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오드리머'라는 진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석회석신소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

29,337명 단양군민의 열원으로 국가지질공원이 될 수 있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물론 역사부터 문화, 레저까지 많은 매력을 가진 단양 국가지질공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풀고 갔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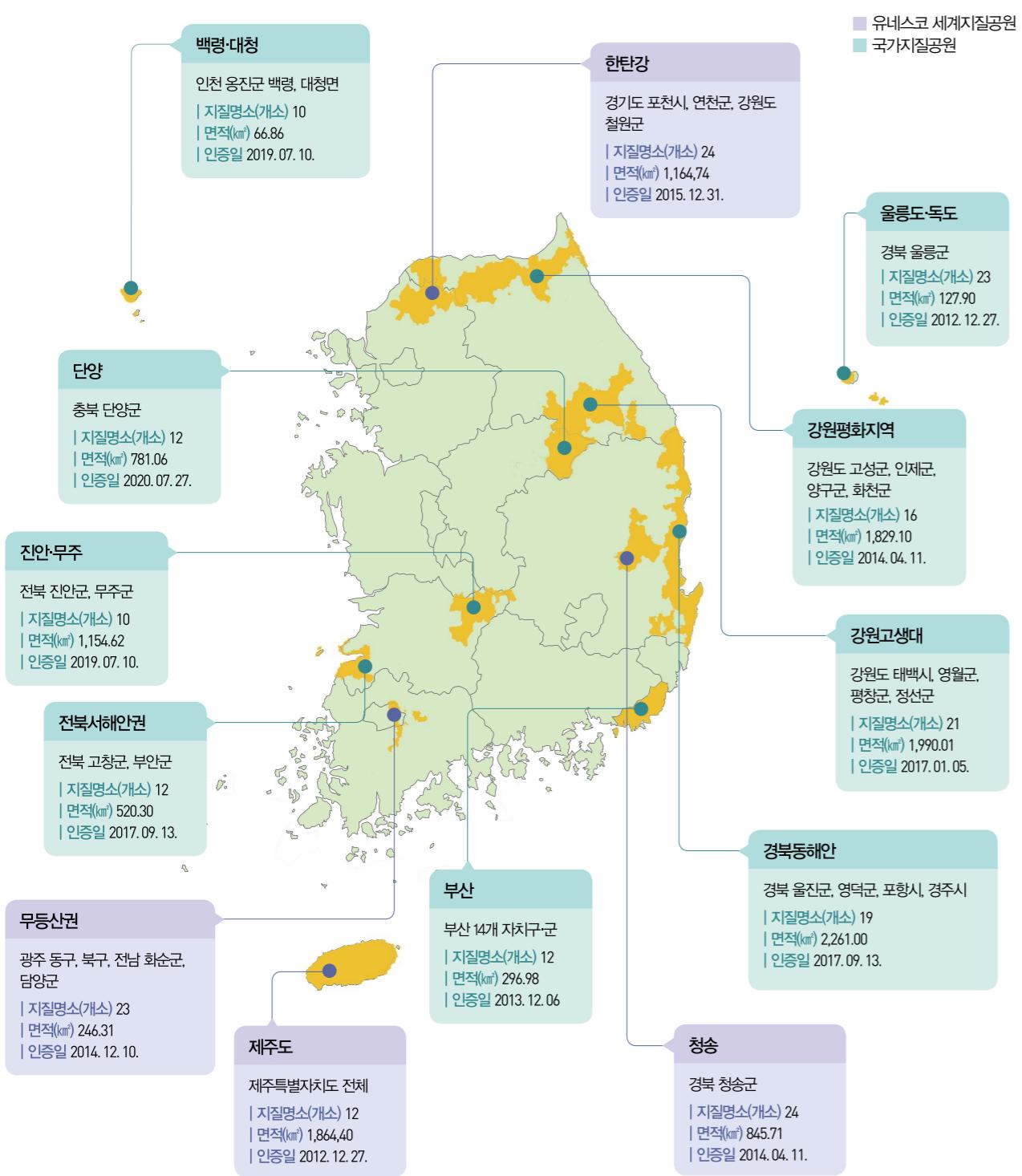
한국의 국가(세계)지질공원

지질공원

지질유산을 보전하는 한편 교육 및 관광에 활용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질을 다루기보다 사람(주민) 중심의 활동이 핵심

| 국가지질공원 13개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4개



국가(세계)지질공원 대국민 인지도 조사

지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가(세계)지질공원 대국민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향후 국가(세계)지질공원 운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전체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인지 수준과 만족도 등을 파악했다.

| 조사대상 만 20~59세 남/녀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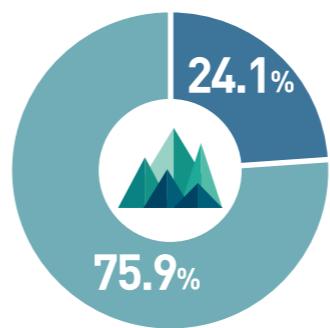
| 표본크기 1,000명

| 조사지역 전국 17개시/도

| 조사기간 2020년 7월 23일 ~ 29일

| 표본설계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인구비례 할당

1 국가지질공원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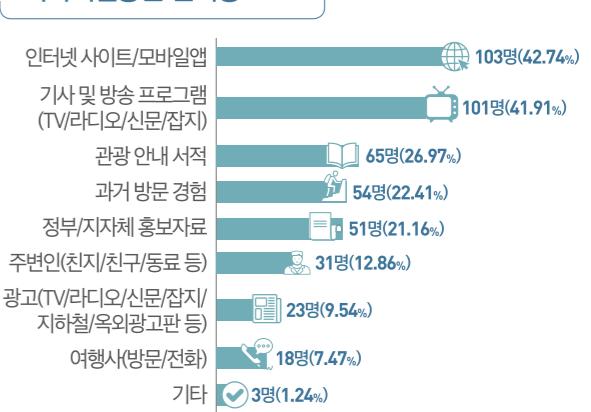


* 응답자 1,000명

안다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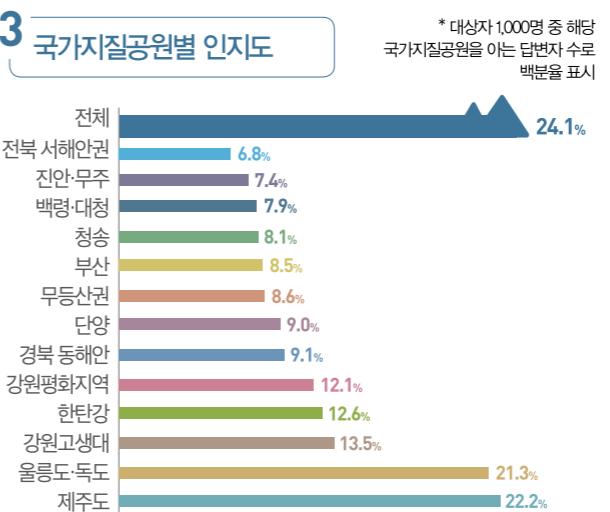
'국가지질공원'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000명 중 24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4.1% 기록

2 국가지질공원 인지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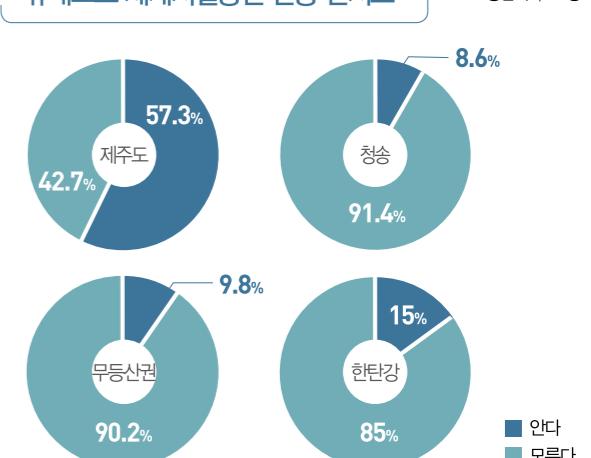
* 응답자 241명, 복수응답

3 국가지질공원별 인지도



* 대상자 1,000명 중 해당
국가지질공원을 아는 답변자 수로
백분율 표시

4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인지도



* 응답자 1,000명

5 국가지질공원별 방문자 만족도



각 공원별 체험 프로그램 소개



|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 포천

종류	프로그램명	체험 시간	대상
체험	지질케이크 만들기	1시간	가족 단위
해설	지질공원센터, 비둘기당 폭포	40분	전체
특별	한탄강 지질유산탐방	2시간	학생 단위

■ 연천

종류	프로그램명	체험 시간	대상
예코투어리즘	지오 카약 투어링	3시간	국내외 여행객 (단체/개별)
에듀테인먼트	연천 한탄강 유네스코 지오파크 탐사대	1박 2일	내/외국인, 학생 단체 (20인 이상)
식도락 여행	연천 미미(美味)로컬푸드 투어	4시간	국내외 여행객 (단체/개별)

|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종류	프로그램명	체험 시간	대상
해설	서낭바위	30분 내외	중·고등학생, 일반인
	운봉산 돌강	30분 내외	중·고등학생, 일반인
	찾아가는 이야기	1시간	초등학생

|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 고창

종류	프로그램명	체험 시간	대상
체험	지질실험(상시)	1시간	초등학생 이상
해설	선운산 진홍굴부터 천마봉까지	2시간	방문객
탐방	운곡습지 탐방	15분	방문객

■ 부안

종류	프로그램명	체험 시간	대상
체험	지층 컵케이크 만들기	30분 내외	유치원~중학생
해설	문화, 생태가 함께하는 채석강·적벽강	1시간 내외	전 연령
특별	부안으로 떠나는 지질탐사 여행	협의	지질 및 지형과 관련된 학과 또는 고등학생, 지구과학 교과 선생님

|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 포천

종류	프로그램명	체험 시간	대상
체험	바람 맞은 타포니컵 만들기 체험	30~60분	유치원~성인
	카누와 함께하는 지질탐험	60분	초등학생~성인
해설	마이산 백악기 역암 이야기	60~90분	유치원~성인

|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 연천

종류	프로그램명	체험 시간	대상
체험	내가 만드는 땅자우개	40분	유치원~초등 2학년
해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알기	명소별 상이	전 연령
특별	지오스쿨	2시간 30분씩 5일간	초등 4~6학년

| 부산 국가지질공원

■ 연천

종류	프로그램명	체험 시간	대상
체험	지질공원 보물찾기! - 지오티어링	90 ~ 120분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해설	지질공원해설사와 떠나는 지구 시간여행!	명소별 상이	초등 3~전 연령
특별	부산국가지질공원 탐방	당일 코스	유선 문의

|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 고창

종류	프로그램명	체험 시간	대상
제주도 지질공원	제주도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모래 알아보기		
초등학교 정규 프로그램 (지오스쿨)	지질명소별 형성과정 알아보기	15 ~ 30분	초등학생
	암석 체험		



각 공원별 지오파트너 소개



|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 포천

업종	업체명	제공 서비스	위치	전화번호
음식점 및 카페	빛골식당	토속음식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숯골길 327	031-533-1810
	샘물매운탕	식당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친우루로 85	031-533-6880
숙박 시설	빛골펜션	펜션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310	031-534-1820
마을기업	교동 장독대마을	숙박, 팜스테이, 체험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신교동로 148-11	031-534-5211
	비둘기당 마을	전통체험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당길 25	031-536-9668
기타	(주)승화푸드	전통 반찬 및 도시락 제조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113-23	02-907-6041

■ 연천

업종	업체명	제공 서비스	위치	전화번호
음식점 및 카페	연강술집연재	카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군남로 782-2	010-9150-4963
	팜세프에이를	카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역로 5번길 19 1층	010-4475-4566
숙박 시설	진파나루 연수원	명상 트레킹 및 스테이	경기도 연천군 왕정면 군왕로 170	031-833-5004
	연천캠핑협동조합	캠핑	경기도 연천군 청연로 2122	010-3627-2781
	푸르내 마을	캠핑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청연로 30-62	031-833-5299
체험 시설	와썹	카약투어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673-2	031-835-5470
	산적의 쉼터 산채	목궁 체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청연로 30-62	-
	푸르내 마을	팜스테이 체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청연로 112	031-833-5299
마을기업	연천 농촌관광 CB센터	지역 체험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전곡로 112	031-835-4545
기타	연천 석예원	미니 맷돌 회분 판매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노로 226	031-833-2141

|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 고창

업종	업체명	제공 서비스	위치	전화번호
음식점 및 카페	논길	식당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43-57	033-442-1248
	콩사랑	식당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271	033-442-2114
	시래원	토속음식	강원도 양구군 나면 도촌리 192	033-481-4200
숙박 시설	베니키아KCP 호텔	호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파로호로 993-19	033-482-7700
체험 시설	양구백자박물관	도자기 공방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033-480-2664
	화천 신대리 토고미마을	체험프로그램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토고미길 22-8	033-441-7254
	양구 팔랑리 지게마을	농촌체험캠프	강원도 양구군 동면 바랑길 87	033-481-8615
	인제 용대리 훨태마을	황태오리 만들기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3리	033-462-4805
마을기업	국토정중앙천문대	천체관측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국토정중앙로 127	033-480-2586

|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 고창

</div

■ 부안

업종	업체명	제공 서비스	위치	전화번호
음식점 및 카페	향토바지락죽집	토속 요리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13	063-583-0051
	별장횟집	토속 요리	전북 부안군 변산면 노루목길 28	063-582-8044
숙박 시설	소노벨변산	호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51	1588-4888
체험시설	전라북도 공예 협동조합(부안)	도자기 공방	전북 부안군 변산면 닭이봉길 62	063-583-5000
마을기업	유유마을	홍보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전북 부안군 변산면 찹봉로 391-2	063-584-0074
기타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교육 및 홍보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063-270-3604

|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업종	업체명	제공 서비스	위치	전화번호
음식점 및 카페	카페 아잘리	돌맹이 쿠키	전북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063-323-5005
	홍삼족육카페	족육체험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	063-433-0643
숙박 시설	진안 홍삼빌	숙박	전북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4	1588-7597
체험 시설	반디랜드	반디볼 체험, 전시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324	063-324-1155
마을기업	호롱불 마을	체험, 숙박, 음식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682	063-322-8001
기타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교실	지구과학 교육 수업	전주시 덕진구	063-270-3629

|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업종	업체명	제공 서비스	위치	전화번호
음식점 및 카페	무돌주막	식당	광주 북구 신촌샛강길 120-5	062-266-6086
	무돌홀스토이가구까페	카페	광주 북구 청풍동 1037	010-2567-7893
숙박 시설	황칠마을	글램핑	광주 북구 석곡로 120	062-252-4700
체험 시설	평촌도예공방	도자기 공방	광주 북구 담안평무길 77	062-266-8008
기타	몽땅	수제비누 판매	광주 북구 석곡로 303	010-3607-4021

| 경북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업종	업체명	제공 서비스	위치	전화번호
음식점 및 카페	경주 양남주상절리빵	빵집	경북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29	054-776-8333
체험 시설	울진토염체험	토염체험	경북 울진군 균남면 친환경엑스포로 25 울진엑스포공원 내 토염체험장	054-781-2247
마을기업	영덕 예주고을	전통체험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8길 14-7	054-733-2112

| 부산 국가지질공원

업종	업체명	제공 서비스	위치	전화번호
음식점 및 카페	대저농협	농산물	부산 강서구 대저로 229	051-972-4154
	조내기고구마	식품	부산 영도구 웃서발로 78	051-403-9996
체험 시설	송도해상케이블카	케이블카 등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 171	051-247-9900
기타	부산시환경교육센터	교육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051-507-4755

|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업종	업체명	제공 서비스	위치	전화번호
먹거리	지오아라	카페 및 지오 기프트 판매장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로114번길 54-86	064-794-2892
숙박	느르왓	수월봉 지오하우스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중길 23	010-7369-9464
	사랑이 꽂파는 민박	김녕 지오하우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9길 12	010-3071-4504
체험 및 활동	(사)올레	지질공원 코스 공유	제주도 서귀포시 중정로 22	064-762-2190
	차귀도 파워보트	수월봉 트레일 코스 운행 및 할인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1163	064-738-5355
기념품	수월봉 자전거	수월봉 코스 친환경 전기자전거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74-9	010-7591-7388
	수월해지다	지질기념품 판매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60 수월봉 팔각정	010-7591-7388
교육	갈중이	제주 특산품영색 기념품 제작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216번길 24-61	064-794-1686
	한국뷰티고등학교	지질공원 명소별 특화교육 및 정규프로그램 운영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용고로 70	064-795-8240